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웅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1월 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20세기 현대의 스님들이 1의 1발만으로 살 수 있을까. 분명 아니다. 평생을 1의 1발로 수행과 포교에 나섰던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출가제자들이지만 달라진 삶의 환경에 달라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성불을 향한 원력이 녹슬고 흩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탱해야 한다. 병마와 늙음이 찾아 왔을지라도 피안에 이르도록 배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의료수혜와 노후안정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처님은 출가수행자들의 복지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 정신을 살필 일이다. 〈편집자주〉

비구가 병들었을 때는…

비구가 병들었을 경우에는 변소에 가까운 방을 배정해 주며 목욕시킬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욕구(浴具)를 갖추어 주고 때가 아니라도 마음이 먹고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를 주며 밤중이라도 모여서 가르침을 설하며 시벽에는 병자가 먹을 식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오분율〉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옷과 밥과 거처와 약을 공양하는 재가의 사람들은 그대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대들도 역시 처음이나 끝이 아름답고 청정한 교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출가와 재가는 이와 같이 서로 의지하여 서로 돕고 번뇌를 넘어서 고통의 끝맺음을 하는 것이다. 〈마하제파경〉

그대들은 여러가지 생활물자의 부족때문에 계율을 어기고 여러가지 악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음식 의복 와구 사택 수레 보배 여러가지 꽃 향수 의약 등 많은 생활물자와 도구를 준다. 〈무량수경〉

선남자여 나는 온갖 중생의 모든 병을 다 알고 있어서 풍황 담열 귀매 충독과 내지는 수화(水火)의 상해… 이런 모든 병을 내가 다 고쳐준다. 온갖 병자가 나 있는 곳에 오면 난 그들을 다 치료해 낫게 하고 깨끗한 더운 물로 그 몸을 목욕시킨다. 그리고 향화(香華) 영락 명의상복(名衣上服) 등 갖가지 치장하는 물건을 보시하며 온갖 음식과 재물을 다 충족시켜 주어서 모자람이 없게 한다. 〈화엄경〉

여래가 세상에 나타난 까닭은 불행에 빠져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니 누구건 스님들과 모든 가난한 자, 고독한 자, 노인 등을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해서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점차 공덕이 차면 마땅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법구비유경〉

지금부터는 마땅히 병자를 돌보아 주어라. 만약 나를 위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병자를 위하는 것이 좋다. 〈사분율〉

관련기사 2면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기단 균열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분황사 석탑(국보 제 30호).

◇유적층 발견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주 소금강산 앞 아파트 부지. 12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설 예정이다.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재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에 설정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지난 1일 제123회 정기종회를 개회, 의장에 설정스님을 재선하고 수석부의장과 차석부의장에 법등스님 청화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차주상보〉

경주 성지 '훼손 몸살'

분황사 석탑 차량진동 균열
백률사 12층아파트 신축
삼랑사지 4차선 도로 건설

신라불교의 성지 경주의 불교문화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기단과 탑신부에 균열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백률사와 삼랑사지도 고층아파트와 도로건설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분황사 주지 종수스님은 지난 10월31일 "일주문 앞의 차량진동으로 분황사 석탑의 기단부분 벽돌 1백여개가 반으로 쪼개져 있으며, 탑신 서쪽부분도 틈새가 벌어져 있다"며 "시급한 보수와 함께 일주문 앞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에대해 지난해 6월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균열과 탑신의 틈새를 확인했으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분황사 앞 도로의 대형차량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백률사는 이차돈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 528년(법흥왕 15년)에 창건한 유서깊은 사찰이다. 그러나 최근 백률사에서 직선거리로 70여m 떨어진 곳에 12층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9월 한달 동안 아파트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맡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조사 결과 신라시대에 축조된 100여m의 담장기초석과 유적층이 발견되었다"며 "이곳이 이차돈의 죽음과 관련된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주시 성건동 삼랑사지는 신라 신문왕의 국사였던 경흥스님이 머물면서 저술활동을 했던 곳으로 경주시가 4차선 도로를 건설중이다. 삼랑사지에는 현재 도로예정지에서 30m 떨어진 곳에 보물 제127호로 지정된 당간지주가 남아있어 도로 건설이 강행될 경우 사지 전체가 도로에 묻히게 된다.

이에대해 경주시문화과는 "문화재위원들의 현장조사 결과 문화재훼손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군불교 진흥회 사단법인 인가

법당건립 · 군법사 해외연수 · 기부금 양성화등 추진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지난 10월29일 숙원사업이던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97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군불교진흥회는 앞으로 기부금을 양성화할 수 있게 됐으며, 수익사업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군불교진흥회는 97년도에 10명의 군법사를 선발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소홀했던 군승법사 및 군종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후원회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한 5개소 이상의 군법당건립을 지원하고, 군법당이나 법사 미파견지역에 비디오테입과 불서 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현안 의견 수렴 문체부-교계 간담회

문체부는 지난 10월29일서울 프레스센타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 대표스님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경문 문체부차관은 국민화합에 불교계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불교계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융종총무원장 배일공스님,조계종 총무부장 혜창스님을 비롯 각종단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일 서울대회 결산 종단협 정기이사회

한국불교 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10월30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를 결산했다.

이날 종단협은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대회 3차대회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를 97년 3월중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총지종이 추진하고있는 소비자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오는 12일 'OECD가입과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키로했다.

제2회 신행수기 모집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신행수기 공모는 자신의 신행을 돌아 보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삼보에 귀의하여 불자의 길을 걸으며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웃과 나누며 불심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슴에 묻어 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넓혀 갈 이 기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선작은 본지에 연재됩니다.

△원고분량: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공모대상:불자면 누구나
△원고마감:1996년 12월 15일
△당선작 발표:1997년 본지 신년호
△접 수: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공모 담당자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불자 인터넷교육 무료실시

본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 정보공유의 능력 배양, 전산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현재 4차(부산) · 5차(광주) 접수중)

◇교육대상
· 스님, 불교계 업무 종사자 및 일반불자
◇모집인원 150명
· 선착순 (부산 · 광주 각 30명)
◇교육 내용
· windows 기본
· 인터넷 기본, 중급, 고급
◇교육 일정
· 4차(부산):11월9~12일
· 5차(광주):11월23~26일
◇교육 장소
· 삼보컴퓨터 교육센타
-부산 : 동구 초량 3동 1163-2 부산 삼보컴퓨터 사옥 2층
-광주 : 북구 유동 117-13 덕성B/D 3층
■문의 : 본사 전략정보팀 (02)737-8881
※협찬: 삼보컴퓨터

현대불교신문사

'수미산' 현장 간월암 문학기행 11면
'빈곤추방 헌신' 아리야라트네박사' 3면
불교교양대 전문화 바람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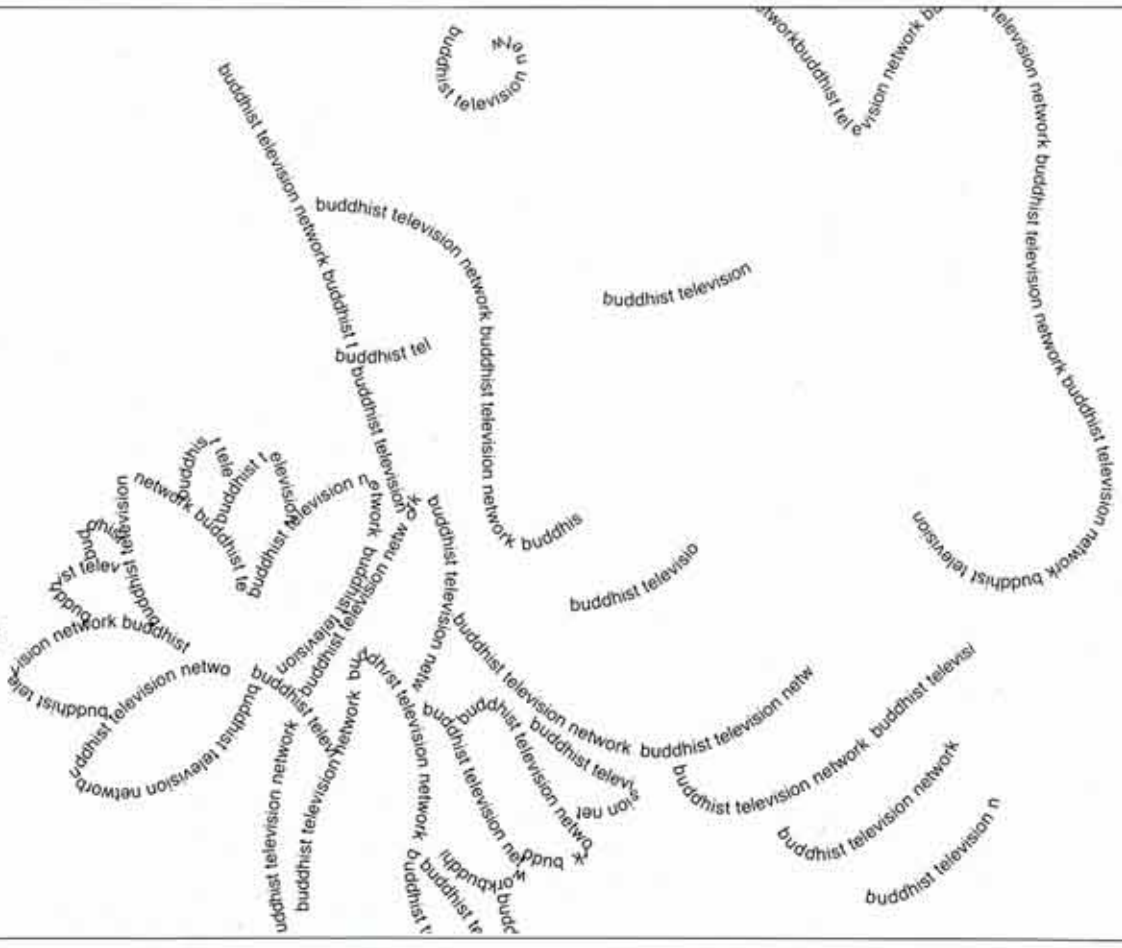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기 간 : 96. 11. 1 ~ 97. 2. 20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동참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케이블TV 설치 문의처
■서울지역 강남케이블TV:강남구 516-3009 강동케이블TV:강동구 4743-1116 강서케이블TV:강서구 3663-1414 구로케이블TV:구로 금천구 630-8300 관악케이블TV:관악구 877-5000 노원케이블TV:노원구 934-3366 동작케이블TV:동작구 215-0114 동부케이블TV:동대문구 433-2121 동서울케이블TV:성동 광진구 499-6600 동작케이블TV:동작구 824-9080 마포케이블TV:마포구 711-1125 미래케이블TV:도봉 강북구 359-5555 북부케이블TV:성북구 942-9001 서울케이블TV:서대문구 365-0101 서초케이블TV:서초구 525-8952 송파케이블TV:송파구 319-2700 우리종합유선방송:동작구 419-3000 은평케이블TV:은평구 355-8000 중앙케이블TV:중랑 동대문구 763-6761~3 한강케이블TV:영등포구 634-3200 한국통신케이블TV:양천구 645-2222 부산지역 금정케이블TV:금정구 515-6140 남동케이블TV:강서 서울 북구 320-3112~6 동남케이블TV:남 부산구 420-5000 범천케이블:대치동 부산진구 646-8885 부산케이블TV:동래 금래구 555-0300 서부산케이블TV:서 서대구 250-0300 중부산종합유선방송:중 동 보도구 412-0666 새한대케이블TV:해운대구 746-7122 대구지역 코코케이블TV:북구 953-4000 동구케이블방송:동구 665-7777 대구케이블방송:중 남구 656-5555 서대구케이블TV:서구 567-6000 구정케이블방송:구정구 768-9888 주안방송:남서구 551-2000 인천지역 남동케이블TV:남동구 432-4757~8 삼천종합유선방송:연수 남구 475-0391 부인천케이블TV:부평 계양구 551-5300 서인천케이블TV:서구 582-3211~4 서해종합유선방송:중 동구 761-8888 광주지역 광주케이블방송:북 동 북구 512-4433 광주케이블TV:대도 주서 남 광산구 370-5700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대덕 동구 673-3322 한밭케이블TV:중 서 구 222-6350~1 기타지역 수원방송국:수원 267-4011~6 (주)강원케이블TV:춘천시 춘천 화천 양구군 242-2121~2 원주종합유선방송:원주시 횡성군 271-0006 천안케이블TV:천안시 천안군 551-8881~4 전주케이블TV:전주시 완주군 250-6500 시흥방송:목포시 신안 무안군 78-7777 강릉케이블TV:강릉시 동해 양양군 251-7777 전남케이블TV:함평 전북 익산 47-6900~4 제주케이블TV:제주시 북제주군 41-7777